'공공기관 이전' 지역민 관심 최고조

與 지역 국회의원 역량 시험대

시도간 무한대결속정치력 발휘 주목
성과 땐 '훈장' 실패 땐 '돌팔매' 부담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지역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도 우선 배분보다는 효율성 및 형평성을 원칙으로 삼아, 자칫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문제가 광주·전남 정치권, 특히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시험대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이번에 수도권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 12개 광역시도에 공공기관을 균등배분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이 문제는 알짜 공공기관을 차지하기 위한 각 지역 정치세력들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다. 지방간 무한대결 양상을 띠고있는 이문제에 지역민들의 관심도 엄청나다.

때문에 광주·전남지역으로의 유치를 놓고는 여당인 이 지역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은 그만큼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물론 기대치 이상을 유치해 냈을 경우의 공도 대부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차지할 수 있어 부담이 큰 만큼이나 얻는 것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대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광주·전남 지역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위상은 한껏 드높아 질 것으로 덩달아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지지율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연이어 지역의 맹주자리를 놓고 민주당에 패배하면서 가라앉아 있던 위상을 다시 반전 시킬 수 있고, 내년 지방선거로까지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역민들의 실망감을 증폭시켜, 그렇지 않아도 추락하고 있는 지지도를 더욱 더 가라앉게 하는 상황을 연출, 사실상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역에서 고개를 못들 개연성이 높다.

이처럼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광주·전남지역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에게는 향후 정치적 사활이 걸린 문제로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의원은 단연 염동연 의원(광주 서갑)을 꼽을 수 있다. 염 의원은 지난번 우리당 전당대회에서 광주·전남지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속에 당당히 2등을 차지하면서 상임중앙위원에 진출, 광주·전남의 대변자로 등장했다.

이와관련 염 의원의 한 측근은 11일 "염 의원은 지금 다양한 채널과의 접촉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에서 낙후도가 심한 광주·전남에 특별 배려가 있지 않을 경우 지역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점을 강도 높게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그러나 "문제는 당·정·청이 참여정부를 탄생 주역인 광주·전남의 특수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염 의원도 이를 매우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여당인 자신들의 정치력 부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의 열린우리당 의원들 일부는 짐짓 이 문제는 자신들의 직접 책임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누구로부터도 이와 관련한 정보조차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김석원기자 sykim@kwangju.co.kr

與 이번엔 '빽바지' 공방

실용파 의원들, 개혁파 '난닝구' 공세에 반격

열린우리당내의 실용파와 개혁파 간의 대립이 가관이다. 개혁파 진영에서 실용파 인사들을 '난닝구'라고 지칭해 비판하더니 이제는 실용파가 개혁파는 '빽바지'라고 치받으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난닝구'는 러닝셔츠의 일본식 발음으로 지난 2003년 민주당에서 분당할 당시 구당파 인사들중 한 인사가 '난닝구'차림으로 반발한 것에서 유래했다. 민주당과 통합을 주장하는 실용파 인사들을 지칭, 개혁파의 유신민 의원이 지난 4·2전당대회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반면 '빽바지'는 백(白)바지의 속어로 유 의원이 2003년 4월 재보선 당선 뒤 국회본회의장에서 흰색 면바지를 입고 나타난 것을 비꼰 것이다.

공방은 개혁파들이 시작했다. 재보선 패배 이후 실용진영에서 정국 주도권 회복을 위해 민주당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개혁파인사들이 '난닝구'들은 민주당으로 가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실용파가 "개혁파 인사들을 향해 우리가 '난닝구'라면 너희들은 '빽바지'"라고 맞대응하면서 대립각이 커졌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데는 개혁파가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실용파의 의사 결정에 계속 반기를 들고 있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개혁파측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과거사법 표결과정에서도 '찬성'당론에 반발해 실용노선의 당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한 바 있다. 지도부 내에서도 개혁과 실용의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당 혁신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같은 열린우리당내 실용파와 강경 개혁파간 논쟁에 한나라당도 가세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11일 "다수당이 집안 싸움으로 날을 샌다. 책임질 의사도 능력도 없는 무늬만 책임다수당이다"고 주장했다.

/김석원기자 sykim@kwangju.co.kr

열린우리당내 실용파와 강경개혁파 사이에 '난닝구'대 '빽바지'논쟁이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11일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개혁파의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朴대표 '고 건 前총리 영입' 시사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1일 고 건 전 총리에 대한 영입 가능성과 관련, "당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좋은 분은 많이 모셔올수록 좋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대전 MBC 라디오 '시대공감' 프로그램에 출연, 고 전 총리의 영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한나라당은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수 대연합론'에 대해서는 "이 시대에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도 "국익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누구와도 협조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연합뉴스

'몸값' 오른 최인기의원 6월중 입당 최종 결정

우리-민주 구애속 선택 주목

무소속인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사진)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간의 치열한 입당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양당은 최근 잇따라 지도부가 최인기 의원과 만나 '조건'을 제시하면서 입당을 권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정세균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는 한화갑 대표가 직접 최 의원을 만나 입당을 권유했다. 최 의원측도 11일 이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주 정세균 원내대표가 최 의원을 만나 국정에 협조하다보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입당을 정식으로 권유했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 한화갑 대표도 이낙연 원내대표를 배석시킨 가운데 지난 9일 최 의원을 만나 입당을 권유하면서 구체적인 역할까지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중요한 것은 최 의원의 입장. 최 의원은 현재 양측으로 이같은 구애를 받고 고민을 하고 있으나 내심 마음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 의원은 광주·전남지역 국회출입기자들을 만나 사실상 민주당으로 마음이 가 있음을 밝혔었다.

이와관련,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지금 남미를 방문중인 최 의원이 22일께 귀국하는데 6월쯤 민주당에 입당하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최의원의 한 측근은 6월중에 정당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원기자 sykim@kwangju.co.kr

"호남구애 진심 담아라"

광주출신 한나라 부대변인 이정현씨 당 홈피에 쓴소리

한나라당의 '서진(西進)' 대열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권주자 '빅3'는 물론 국회의원 모임, 당직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광주·전남을 찾아 시민들에게 구애와 화해의 몸짓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호남껴안기'다.

이에 대해 광주 출신의 한나라당 당직자가 고언과 비판을 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정당 시절부터 22년째 한나라당과 그 전신당에 몸담아 온 상근 부대변인 이정현씨(사진). 그는 최근 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호남 접근, 진정성이 더 필요하다'는 A4용지 다섯 장 분량의 긴 글을 띄웠다.

이 부대변인은 "채찍질하는 심정으로 몇가지 고언을 하겠다"며 "지난해 이후 한나라당의 호남방문에도 불구하고 호남사람들의 마음은 미동도 없다. 그것은 접근방법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부대변인은 "5·18이 아니더라도 호남인들이 한나라당 전신 정당과 정권에 대해 갖는 상처는 많았다"면서 그 상징적인 예로 호남선복선화와 인사에 있어서 호남출신 배제를 들었다.

그는 "호남선복선화에 36년이 걸렸다. 달팽이가 기어서 서울에서 목포를 갖다와도 서너번을 다녔을 기간이다. 복선화 개통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는 고속철도개통식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헌정 이후 처음 호남출신 대통령이 나왔을 때 한나라당의 대여 비판은 호남사람들에게 '지나친 발목잡기'로 비춰져 섭섭했을 것이라는 표현도 곁들였다.

이 부대변인은 "사정이 이런데도 당의 호남 접근 방식은 너무 안이하고 편하고 건성이고 호남인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호남인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줘야 한다"며 "호남인들의 깊은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시간과 열정, 작은 희생까지 감수하면서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호남에 접근할 때는 '전략도 정략도 필요 없이 진정성을 가지고 도리를 다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호남에 정열을 쏟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대선 때 97년은 38만표, 2002년은 50만표차로 패했다. 특히 2002년 대선 때 호남에서 우리는 274만표 대 14만표로 졌다. 호남을 포기하는 하는 것은 대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호남 정치는 한나라당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여건이며, 박근혜 대표는 호남인의 상처를 치유할 최적임자다"라면서 "한나라당이 환골탈태하고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국회 교섭단체 '10인 이상'

이낙연 의원 구성요건완화 입법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1일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 이상 국회의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노동당, 자민련 등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규정해놓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 이상의 의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난실의원, 5·18 사적지 보존관리 조례안 제출

5·18 사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광주시의회 윤난실(민노·비례) 의원은 11일 "광주시가 25곳의 5·18 사적지를 지정했으나 표지석만 세워져 있을 뿐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5·18 사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30일 개회하는 제142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조례안에는 사적지 보존·관리 주체를 시 또는 자치구가 할 것인지, 5·18 관련 단체에 위탁할 것인지를 명시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도록 명문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적지 안내단'운영 등 5·18 사적지 순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담긴다.

80년 5월 당시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민주화와 군부독재 타도를 외쳤던 5·18 사적지는 도청 주변 10곳, 전남대 일대 4곳, 광주공원 및 양동시장 주변 4곳, 외곽지역 4곳(광주교도소, 5·18 구묘역, 주남마을, 진월·송암동 광주·목포간도로 양민학살지), 상무대 등 군시설 2곳, 농성광장 등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공 시 최 고

사건번호 신 청 인	1)주소, 종류, 번호, 금액 2)발행일(지급일) 3)발행인(지급지)
2005카공 95 윤왕석	1)광주 서구 금호동 호반아파트 203-304 자기앞수표(거마83572232~83572234) 각금100,000원정(3매) 2)2005. 3. 29 3)등광양농업협동조합
2005카공 96 주낙춘	1)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455-4 자기앞수표(07570046) 금500,000원정 2)2005. 2. 1 3)중소기업은행 동광양지점
2005카공 97 곽진용	1)순천시 조례동 1629 금당대림아파트 103-1104 자기앞수표(가다54883613-54883622) 각금1,000,000원정(10매) 2)2005. 3. 25 3)우리은행 금호출장소
2005카공 98 정길호	1)서울 종로구 청운동 57-27 가계수표(01796889) 금3,000,000원정 2)미기재 3)이근하(국민은행 여천지점)
2005카공 99 최종준	1)여수시 화장동 879-1 약속어음(자가05234552) 금3,410,000원정 2)2005. 1. 17 (2005. 3. 20) 3)유한회사 진남개발(광주은행 여천지점)
2005카공 100 배경환	1)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940 자기앞수표(79834228~29) 각금500,000원정 2)2004. 10. 19 3)진상농업협동조합
2005카공 101 박여현	1)여수시 여서동 373 금호아파트 7-1103 약속어음(자가01195555) 금980,000원정 약속어음(자가01341727) 금 백지 약속어음(자가02019383) 금 백지 2)미기재 3)박여현(광주은행 여수지점)
2005카공 102 신용운	1)여수시 선원동 1281-3 약속어음(자가05324179) 금6,130,000원정 2)2004. 12. 27(2005. 3. 30) 3)주식회사 성동기업(국민은행 여천지점)
2005카공 103 노연임	1)여수시 둔덕동 657 한려주공아파트 103-1301 자기앞수표(라가862547 26) 금1,000,000원정 2)2005. 4. 6 3)여수수산업협동조합 중앙지점
2005카공 104 심영숙	1)여수시 상암동 680 자기앞수표(라마02013678) 금1,000,000원정 2)2005. 4. 4 3)여천농업협동조합 시전지점
2005카공 105 소병용	1)대구 북구 구암동 655-3 동서아파트 102-707 가계수표(아가13761182) 금3,000,000원정 2)2005. 1. 31 3)박영우(농협중앙회 남순천지점)
2005카공 106 박종구	1)순천시 인제동 161-8 자기앞수표(나가05255926~27) 각금삼십만원정(2매) 2)2005. 3. 16 3)농협중앙회 남순천지점
2005카공 107 박창배	1)여수시 남면 심장리 759 자기앞수표(거다96368394~400) 각금100,000원정(7매) 2)2005. 3. 18 3)중소기업은행 여천지점 자기앞수표(거다96368402~407) 각금100,000원정(6매) 2) 2005. 3. 18 3)중소기업은행 여천지점
2005카공 108 지재남	1)순천시 조례동 68-19 연동2차 대주파크빌 207-101 약속어음(자가02249980, 자가02249315, 자가02249319) 금 미기재 2)미기재 3)지재남(광주은행 남순천지점)
2005카공 109 한재형	1)순천시 연향동 대우아파트 101-506 자기앞수표(92290560~66) 각금100,000원정(7매) 2)2005. 4. 11 3)순천농업협동조합
2005카공 110 정장훈	1)순천시 풍덕동 1288-20 약속어음(자가03244195) 금삼백만원정 2)2004. 12. 10 3)장석진(광주은행 순천지점)
2005카공 111 홍영주	1)여수시 신기동 2-2 자기앞수표(라라97096001~009) 각금100,000원정(9매) 2)2005. 4. 21 3)여수농협 국동지점 1)여수시 신기동 2-2 자기앞수표(라마 02014733~35) 각금1,000,000원정(3매) 2)2005. 4. 21 3)여수농협 석창지점
2005카공 112 김경완	1)여수시 남산동 616-6 자기앞수표(라나86395042) 금1,000,000원정 2)2005. 4. 19 3)조흥은행 여천지점
2005카공 113 김순이	1)여수시 덕충동 귀인그린파크 1613호 자기앞수표(18251466) 금6,000,000원정 2)2005. 4. 16 3)여수우체국
2005카공 114 정동익	1)여수시 분수동 675-1 흥화아파트 6-205 송달장소:여수시 학동 85-1 화인빌딩 2층 자기앞수표(76217886) 금1,000,000원정 2)2005. 4. 22 3)중소기업은행 여천지점
2005카공 115 김병주	1)여수시 봉강동 323-18 자기앞수표(97747296~98) 각금1,000,000원정(3매) 2)2005. 4. 21 3)국민은행 여서동지점
2005카공 117 이재필	1)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청구불루빌 223호 송달장소:여수시 봉산동 263-1 캠생캠사 pc방 3층 자기앞수표(거다46581603~10) 각금100,000원정(8매) 2)2005. 4. 21 3)국민은행 여서동지점
2005카공 118 구문숙	1)여수시 안산동 658 모아미래도아파트 105-702 자기앞수표(라가87671525) 금1,000,000원정 2)2005. 4. 13 3)광주은행 여수시청출장소
2005카공 119 전영길	1)인천 남동구 고잔동 257-2 약속어음(자가05648862) 금2,915,869원정 2)2005. 2. 28(2005. 6. 2) 3)성창기공(주)(국민은행 순천기업금융지점)

상기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5. 8. 20. 14: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05년 5월 1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사 권 기 만